

규제 완화에 매매 증가...광주 부동산시장 훈풍 부나

3월 매매 1104건 전월 대비 3.3% ↑ ...2월부터 1000건 넘어서 광주 부동산 거래회전율 0.24%→0.69%로 ...2개월 연속 상승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수렁을 빠져나오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세에 들어가는 등 차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는 1104건으로 전달인 2월(1069건)보다 3.3% 늘었다.

앞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에 따라 지난해 12월 502건으로 최저점을 찍었고, 올해 1월에도 664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2월부터 1000건을 넘어서면서 1년 전인 지난해 2월 거래량(1147건)의 93.1% 수준까지 올라왔다. 3월 역시 1년 전(1462건)의 75.5%로, '경기 회복'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평년 수준의 70%'를 넘겼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비롯해 대출금리 상승으로 폭 끓었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증자리론 신설(1년 한시) 등 실수요층의 대출 문턱을 낮췄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허용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각각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아파트를 구

입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부동산 거래회전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0.21%로 전월(0.16%)보다 0.05%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월(0.15%)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거래회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0.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에 0.37%로 전월(0.28%)보다 0.09% 포인트 높아졌다. 이 역시 지난해 8월(0.41%) 이후 최고 수준이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광주는 0.24%에서 0.69%로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매월 소유권 이전 가능 부동산을 매월 말일 현재 소유권 이전 가능 부동산 산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거래된 부동산이 적고, 거래시장 활력이 떨어진 상태를 보여준다.

한편 광주에서는 이달 일반 분양 물량이 1079가구로 조사됐다. 직방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서구 상촌동 상무센터빌지이 903가구에 대해 분양에 나서고, DL건설은 남구 봉선동(장미구역 주택 재건축)에서 '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542세대 중 176세대를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XR 생태계 위해 디스플레이·반도체·광산업 뭉쳤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협약 체결 XR 전후방 공급망 조성 나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XR기기의 핵심 제조 산업 간의 생태계 조성 및 협력을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광산업(광학부품) 산업간 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MOU 체결은 광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함께 XR 기기의 핵심제조 산업 간 협력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참석한 기업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업해 한국의 XR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공급망 및 경쟁력 분석, 발전 방향 제시, 정책 제안 등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기술교류회, 세미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간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XR 전후방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 간 기술 개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제조 환경을 위해 국내 XR 관련 테스트베드 및 실증 기관 분석을 통한 인프라 구축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철동 광산업진흥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산업의 융합 및 협력을 통해 서로 긴밀한 정책·기술·공동연구·인프라 조성 등 관계를 구축해 XR시장에서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영그룹,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공급

1·2단지 1064세대 임대 학세권·대형 쇼핑몰 등 장점

부영그룹(시공 부영주택)은 전남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조감도)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 766세대 규모다. 이 중 1회차 1064세대(1단지 570세대·2단지 494세대)를 임대한다.

현재 1·2단지 총 14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 새 아파트를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해당 단지는 완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입주자가 가능하다.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일

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임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또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도 보장된다.

단지는 도보권 광양복초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테크 등이 있고,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 등도 가깝다. 또 대형 쇼핑몰인 LFS퀘어 광양점, NC백화점과 광양농협로컬푸드직매장, 광양5일시장 등도 인근에 있다.

교통여건도 장점으로, 인근에 남해고속도로 광양 IC를 통해 전국 각 지역 이동이 수월하다. 광양제철소,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황금일반산업단지, 세종일반산업단지, 울촌산업단지 등도 인접해 직주근접 요소도 갖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견본주택은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00-2(광양복초등학교 옆)에 마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취준생 65% "출근·재택 병행 기업 선호"

기업 복지는 '점심 제공' 62%

취업준비생들은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최근 신입직 구직자 911명을 대상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유형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이상적인 근무 유형으로는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 시행을 꼽은 응답자가 64.7%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전사 사무실 출근(9.9%)이나 100% 재택근무(5.7%)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10% 미만이었다.

원하는 기업 복지(복수응답)는 중식 제공

(62.0%)이 가장 많았고 당일 휴가·반차 사용 허용(52.5%), 자율출퇴근제 시행(48.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해외 워크숍·세미나 참석 기회 제공(18.4%), 사내 어린이집 운영(15.1%),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 허용(4.6%) 등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이상적인 임직원 규모는 직원 수 100여명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여명(23.4%), 50명 이하(20.9%), 500명 이상(18.3%) 순이었다.

조직 연령 구성은 20~30대 위주 젊은 조직(17.7%)보다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이 고루 섞인 조직(60.2%)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합뉴스

"한달 남은 로또 당첨금 58억원 찾아가세요"

58억원의 로또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복권기금에 귀속될 상황에 처했다.

13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8일 추첨한 로또 제1017회차 1등 35억 1768만원과 2등 5863만원 당첨금, 같은 달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1등 당첨금 22억666만원도 미수령 상태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라는 점에서 제1016회차 당첨금은 내달 22일까지, 1017회차는 내달 29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절찬 판매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